

오태진 한국사

19년 1차 경찰채용시험 총평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police.willbes.net

노광진 1544-0336	신림 1544-400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전주(055) 755-7771	온라인 1544-5006

담당 : 오 태 진 교수

cafe.daum.net/officialhistor

Y [2019 1차 순경 공채 한국사 시험 총평]

신광은 경찰학원 한국사 강사 오태진

※ 출제 비중

전근대사				근현대사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일제시대	현대사
3	4	3	5	1	2	2
카 구석기 고조선	왕순서 매지권 금관가야 사치금지령	과거제도 공민왕 문화(통합)	중앙제도 동인·서인 칠정산 비변사 정조	박전기원	3·1운동 임시정부	유신헌법 통일정책

2019년 1차 경찰(순경) 공채 한국사 시험은 대체로 평이한 편이었다.

20문제 중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단 1문제도 없었다. 지난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외우는 방법이 아닌, 개념 정리를 통해 잘 해내고, 사료나 보기 및 선지의 지문을 잘 읽어서 이해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었다면, 100점도 놀랄만한 점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번 시험의 특징을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의 비중이 2차례 연속 낮았다.
2. 정치사 위주의 출제 경향을 보였다. →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지는 느낌을 줌
3.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것은 순경 시험에서는 8년만에 최초로 출제되었으므로, 경찰 시험은 출제된 부분만 반복 출제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비단 이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아예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1번 문제에서, “꼬아서 낸 문제라거나 어려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편협하게 공부한 티를 팍팍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잘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4~5개 정도 나왔다. 총 지문 및 사료 등이 40~50개 정도라고 가정할 때 1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4. 처음 출제된 지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르발루아 수법
- ② 포상8국의 난
- ③ 기와, 숯밥 - 헌강왕(880)
- ④ 명나라 주원장(1368) 원 순제
- ⑤ 4·27 판문점선언(2018)

결론 : 이번 2019 1차 경찰 한국사 시험은 우리 제자들의 군더더기 없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레알, 속출하였다.(→ 허위나 과장 광고나 단순한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님) 이 친구들은 모두 오태진 한국사 2단계에서 50~6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여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본 강사는 분명히 약속하였다.

실전에서는 너희들이 (보수적으로 보아도) 20점 이상 상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로 증명되었다.

폭넓고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로 공부한 학생들과 한정되고 똑같으면서도,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만으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누가 실전에서 이기겠는가?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한국사 100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